

## 전자매체 시대를 고려한 문학번역방법

정 희 연  
(우송대)

### 1. 서론

20세기 중반까지 문학비평이 작가의 의도와 텍스트의 내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문학번역방법 및 비평 역시 원문 저자의 의도와 의미, 문체에 집중되어 연구되어왔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컴퓨터의 보급화로 인해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작가와 독자의 소통이 보다 용이해졌고, 더욱이 2010년을 전후로 한국의 주요 출판사들이 문학웹진과 블로그를 창간하면서 문학 장(field)의 지형변화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sup>1)</sup>. 작가와 독자의 소통이 용이해지면서 작가는 독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게 되었고, 이는 작품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문학 장의 지형변화는 글쓰기 형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문학의 문체변화 역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전자매체가 활성화 된 현 시점에서 문학번역방법 및 번역비평에 변화가 필요하다.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종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던 책은 점점 블로그나 웹진, 전자책, 소셜미디어 등의 전자 매체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대중들은 책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다량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 읽을 수 있는 상황은 그동안 정보검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던 것을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하나의 정보를 꼼꼼하게 읽기보다는 내용만 재빨리 훑는 식의 읽기방법을 유도하게 된다. 또한, 화면을 통해 글을 읽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도가 높아 장시간 읽기 힘들다는 점이 전자매체의 특징이기 때문에, 전자매체에 쓰인 글은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단문의 형식을 취한다.

주로 짧은 글로 구성된 전자매체 글에 익숙해진 현 시대 독자들은 인쇄매체에 익숙한 독자보다 긴 글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긴 문장으로 쓴 소설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만이 옳은 일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학번역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문학번역은 원문이 번역문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번역학에서 가독성 연구는 아직까지는 ‘자연스러움’이라는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언어학에서 주로 연구되어온 가독성이라는 개념은 텍스트의 ‘읽기 쉬운(readable) 정도’ 또는 ‘이해하기 쉬운(comprehensible)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손다이크(Edward Thorndike)는 어휘가 텍스트 난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방편이라고 했으며(Chall & Dale 1995: 84), 데일과 철(Dale & Chall 1949: 23)은 독자가 해당 글을 이해하고, 최적 속도로 읽고, 이에 흥미를 느끼는 정도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요소를 가독성으로 정의하였다. 리처즈 외(Richards et al. 1992: 306)는 글이 얼마나 쉽게 읽히고 이해되는가로 정의하면서, 이는 문장 평균 길이, 새로운 단어의 수, 한 구문에 쓰인 표현의 문법적 복잡성 등 몇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문학작품을 번역하는 목적이 대중성이라면 독자의 가독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특히, 전자매체에 노출이 많은 현시대 독자들의 인지처리상태를 고려해 볼 때, 언어학적 측면에서 연구된 가독성의 여러 요소 중에서 문장의 길이 부분을 문학번역의 가독성 기준에 수용해볼 필요

1) <인터넷 속 문학의 향연: 웹진 전성시대>

<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10/02/26/0902000000AKR20100226219300005>.  
HTML

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견지에서 본 연구는 20대부터 40대 성인 남녀 70명을 대상으로 문장의 길이가 서로 다른 번역본 3종의 선호도 실험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매체 시대에 독자들이 선호하는 문장의 길이를 조사하여 가독성 높은 문학번역방법을 제시하면서 양질의 외국문학작품이 한국독자들에게 외면받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는 문학번역 일반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작품의 성격이나 번역의 목적이 대중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 2. 새로운 매체의 등장

매체는 단순히 인간의 불거리를 다양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를 변화시킨다. 1830년대 미국은 산업혁명의 소용돌이에 있었는데, 농부와 도시민들은 일거리를 찾아 여기저기로 이주하였으며, 많은 유럽인들은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 행렬에 가담했다. 신생국가 미국은 중산층의 증가,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 지위향상, 산업혁명 등을 경험함으로써 도시가 생겨났고, 이에 따라 매스 미디어(Mass Media)의 발전은 가속화되었다. 또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문자 해독률도 높아졌고, 정보욕구가 충족되길 원하는 개인이 늘어나면서 도시 중심부에 대중 신문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중매체의 중심이었던 인쇄매체는 영화가 등장하면서 선두자리를 내주었고, 1940년대 말 텔레비전의 등장 이후 텔레비전에 의존하는 시청자가 많아지면서 영화와 라디오를 코너로 몰았다(조맹기 2004: 250-1, 422-6).

하지만 역시 시대를 나누는 획기적인 도구는 컴퓨터일 것이다. 1980년대 초부터 각 가정과 직장에 컴퓨터가 보급되었고, 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며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바꾸는 작업이 늘고 있고, 신문도 인터넷에서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종이로 된 신문을 보는 가정이 꽤 줄었다. 컴퓨터는 일상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낳았다. 컴퓨터의 거대한 정보저장 용량과 신속한 정보처리 능력은 그 동안 불필요하게 소모해야만 했던 시간의 낭비를 대폭 단축해주었고, 우리의 삶과 삶 모두에게 전례 없는 속도를 제공해 주었다(김

성곤 1996: 79). 컴퓨터의 보급과 확산은 정보와 지식에 대한 그동안의 개념에 일대 전환을 가져다주었다. 맥루언의 시대는 텔레비전의 시대였고, 텔레비전은 기껏해야 책의 독자들을 빼앗아 갈 뿐이었지만 컴퓨터 시대로 접어들면서, 단순히 책의 독자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책 그 자체를 빼앗는 시대가 되었다(67).

이후 인터넷은 급속히 발전하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정보소통의 수단이 되었다. internetlivestats.com에서 201개국 나라의 인터넷사용실태를 조사하였다<sup>2)</sup>.

〈표 1〉 2016년 각국의 인터넷 사용실태<sup>3)</sup>

	인터넷 사용자	인구수	2015년 대비 증·감소율
미국	286,942,362(88.5%)	324,118,787	0.73% 증가
영국	60,273,385(92.6%)	65,111,143	0.61% 증가
한국	43,274,132(85.7%)	50,503,933	0.42% 증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세 나라 모두 전체 인구대비 85%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용자 역시 전년대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WorldAtlas.com<sup>4)</sup>에서는 각 나라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시간을 얼마나 쏟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캐나다, 미국, 영국, 한국 순이었다. 캐나다, 미국, 영국은 한 달 동안 인터넷사용시간이 각각 43.5시간, 35.3시간, 32.2시간을 사용하며, 바로 뒤를 이은 한국은 27.7시간을 사용한다고 조사되었다. 또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접속시간이 가장 빠른 나라로 인구의 92.4퍼센트가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조사되었다.

이제 스마트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누구든 손안에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다. 그로써 향후 인터넷 사용이 점

2) 2016년 7월 1일에 조사 결과.

<http://www.internetlivestats.com/internet-users-by-country/>

3) 201개국 나라 중에서 미국, 영국, 한국의 경우만 표로 나타냄.

4) <http://www.worldatlas.com/articles/top-countries-which-spend-the-greatest-amount-of-time-online.html>

점 더 많아질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형모니터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대에서 5인치 내외 되는 소형모니터로 글을 읽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매체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소통방식이 달라지고, 달라진 방식은 인간의 사고에 변화를 낳는다. 인터넷 매체가 보급되면서 작가와 독자의 거리는 좁아지고, 독자가 작품에 개입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소설은 이전보다 독자중심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 3. 전자매체의 활성화로 인한 독자의 변화

독자들의 읽기 행동이 변하는 요인으로 매체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자주 접하는 매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뇌 역시 변하고, 그것이 곧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 뇌 발달 분야의 전문가 콜브(Brian Kolb)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뇌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의 미래를 바꾼다. 뇌는 유전자만의 산물이 아니다. 평생에 걸쳐 쌓이는 경험들을 통해 조각되는 것이기도 하다. 경험은 뇌 활성을 바꾸며, 그 변화는 유전자 발현양상을 바꾼다. 눈에 보이는 행동 변화는 모두 뇌에 일어난 변화의 반영이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행동은 뇌를 바꿀 수 있다.

(Kolb 2009: 651-2)

인간의 행동에 의해 뇌가 바뀐다는 콜브의 주장은 글의 유형이 독자들의 글 읽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특정 글의 유형에 자주 접하게 되면 뇌 역시 해당 유형에 익숙해진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뇌가 인간의 행동과 도구에 따라 어떻게 변하며, 그것이 인간의 사고와 글쓰기 및 글 읽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 3.1 뇌의 가소성(plasticity)<sup>5)</sup>

지난 한 세기 동안 대부분의 생물학자들과 신경학자들의 뇌에 대한 통념은 성인의 뇌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국의 생물학자 영(John Young 1951: 36)은 인간의 뇌 세포는 사용할수록 더 커지고 발전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고 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William James 1890: 104-6)도 『심리학의 원리』에서 신경조직은 놀라울 정도의 가소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뇌 역시 다른 물체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외부 혹은 내부로 가해지는 힘이나 긴장 때문에 처음과는 다른 것으로 변한다고 기술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뇌 회로는 시각, 청각, 감각, 동작, 사고, 인식, 기억, 학습 등 어느 것에 관해서든 변할 수밖에 없다(Carr 2011: 50).

문자가 없이 살았던 구어문화시절에는 사고가 인간 기억력의 지배를 받아 인간은 최대한 머릿속에 지식을 담아놓고 기억해내야 했다. 하지만 문자가 생기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길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은 이전보다는 기억해야 할 것들이 줄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글쓰기가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도구라고 간주하였지만, 소크라테스는 기억력 상실의 이유로 글쓰기를 거부하였다(조맹기 2004: 82). 대부분 현대인들이 매일 접하고 있는 인터넷 또한 인간의 뇌를 변화시키고 있다. 무한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가져다주고, 필요한 정보는 언제든 다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머릿속에 많은 정보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무한한 정보에 노출되면서 사람들은 하나의 글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보다는 핵심만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고착된다. 이처럼 인간의 뇌는 매체에 따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하고 있다.

### 3.2 독자의 읽기 행동 변화

전자매체 시대의 독자는 진지한 독자에서 흥분된 독자로 부정적인 변화를 보인다(최병우 2006: 67). 텔레비전을 포함한 전자 매체는 인쇄 매체와 근본적

5) 가소성(可塑性)이란 유전자가 지닌 정보가 특정 환경에 따라 특정 방향으로 변화하는 성질을 말한다.

으로 다른 체제를 지닌다. 인쇄물은 인간이 가진 오감을 분리시켜 정적으로 만들지만 텔레비전 매체는 모든 기능을 통합시켜 동적으로 만든다. 이후 컴퓨터의 보급화로 인해 인터넷 매체가 발전하면서 종이에 쓰인 글은 스크린 속으로 옮겨 들어갔다. 종이에서 스크린으로 형태가 변한 것은 단순히 그 방식만 변화된 것은 아니다. 이 변화는 글에 집중하는 정도와 깊이에 영향을 미친다(Carr 2011: 138). 인터넷에서 링크를 통해 쉽고 빠르게 저작물을 볼 수 있으며, 디지털 문서 사이를 건너뛰어 다니기가 훨씬 용이해졌다. 하나의 스크린에 여러 다른 종류의 정보를 모으면서 콘텐츠는 더욱 분절되고 인간의 집중력은 방해를 받는다. 예를 들어 어느 사이트의 콘텐츠를 보고 있을 때 수시로 전자우편이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뜨기도 하고,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같은 소셜미디어에 새 글이 올라왔다는 메시지가 뜨는 등 동시에 여러 사이트에 접속해서 글을 읽게 되면서 인간이 한 콘텐츠에 집중하는 시간은 현저히 짧아진다. 이런 상황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쇄매체를 주로 이용하던 시대의 독자들은 글에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어서 사고 또한 깊어지지만, 전자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독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산만해지기 쉬워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그 만큼 사고의 깊이 또한 알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간은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매체에 맞게 사고하게 되는데, 변화된 매체에 따라 변화된 사고는 글 읽기 행동에 영향을 준다.

### 3.3 글쓰기 행동 변화

인쇄매체에서 전자매체로의 변화는 글쓰기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컴퓨터 모니터 위에 쓰인 글은 종이위에 쓴 글에 비해 한 번에 볼 수 있는 양이 적고, 집중도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글이 머릿속에 빨리 인식되지 않으며 이해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금방 피로해지며 틀린 글자나 비문을 가려내기도 어렵다(김성묘 2003: 20). 그래서 인터넷 문장은 갈수록 짧아지고 수식어를 길게 쓰지 않으며 간결하고 명쾌하게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중철 2011: 340).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글쓰기는 인터넷신문과 이메일을 넘어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 북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셜미디어 공간으로 빠

르게 퍼지고 있다. 블로그에 쓰는 글은 특별한 형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글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읽힌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인 트위터 역시 한 번에 읽고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140글자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소량의 메시지로 정보를 주고받는 트위터 이용자들은 일정한 장소에서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웹보다 스마트폰 같은 이동통신수단을 활용하는 방식을 2대8 정도로 선호한다고 한다(341-9). 이를 종합해보면 인터넷 기사를 주로 읽고, 블로그나 소셜미디어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짧은 글에 노출되는 비중이 점점 커진다 할 수 있겠다.

전자매체로 글을 쓰는 비중이 높아지고, 전자매체로 출판되는 현상은 글쓰기 전반에 영향을 준다. 아날로그 텍스트와 디지털 텍스트가 스토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서사 장르라 할지라도 두 매체는 결코 호환되기 어려운 양식적 특성을 각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텍스트와 디지털 텍스트의 관계를 도구적 변천의 한 양상일 뿐이라고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매체가 달라진 만큼 매체에 담을 내용을 산출하기 위한 ‘읽기/쓰기’의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 아날로그형의 ‘읽기/쓰기’는 이제 디지털형에 합당한 ‘읽기/쓰기’로 변해야 할 것이다. 독서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낭독에서 묵독으로, 다시 집중형 묵독에서 검색형 묵독으로 변하고 있듯이, ‘쓰기’ 또한 관념적 쓰기에서 사색적 글쓰기 단계를 거쳐 또 다른 형태의 쓰기를 모색하고 있다. 사색적 글쓰기가 본격문학의 유산이라면 디지털시대는 불특정 다수가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는 보다 대중적인 쓰기가 필요하다(장미영 2012: 277).

### 3.4 전자매체의 활성화에 따른 목표독자의 인지부하

3.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모니터로 글을 읽을 경우 한 번에 볼 수 있는 글의 양이 적고 집중도와 정확도, 이해도가 떨어진다. 이는 전자매체를 통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그렇지 않은 독자들보다 긴 글을 읽는 데 가독성이 떨어지고 높은 인지부하를 보인다는 것을 뜻한다.

인지부하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 스웰러(John Sweller 1988; 2010)는 인간이 정보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작업 기억의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지부하를 줄이기 위해 학습전략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제

한된 용량 때문에 인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지부하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Clark & Mayer 2011).

내재적 인지부하의 높낮이는 외생적 인지부하와도 관련이 있다<sup>6)</sup>. 내재적 인지부하가 낮으면 외생적 인지부하가 높더라도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지만, 내재적 인지부하가 높은 경우에는 외생적 인지부하의 높고 낮음이 학습을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류지현 2009). 이를 바탕으로 외생적 인지부하의 높낮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류지현(2010b)은 학습자의 과제 난이도의 지각을 다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면에 제시되는 내용에 대한 물리적인 읽기 폭을 짧게 혹은 길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류지현과 문제웅(2013)은 학습자가 글을 읽을 때 인지과정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줄 길이를 짧게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번역에도 인지부하 연구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외국문학을 접하는 목표독자들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때문에 같은 글 길이로 번역 되었을 때, 원천독자들보다 더 높은 인지부하를 느낀다. 더욱이 전자매체 글에 익숙해진 독자들 또는 전자매체를 주로 활용하여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인쇄매체에 익숙한 독자들 또는 인쇄매체로 글을 읽는 독자들보다 더 많은 인지부담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가는 목표독자의 높아진 인지부하를 낮추는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학번역을 함에 있어서 번역가가 임의로 내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진 인지부하를 낮추는 방법은 형태의 변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번역가는 문학작품의 내용은 무조건 충실하게 번역해야 하지만 형태면에서는 필요시 조정가능하며, 이는 불필요한 내재적 인지부하를 낮추기 위해 번역가가 설계할 수 있는 일종의 외생적 인지부하 조절방법이 된다. 불필요한 인지부하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언어학에서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과 류지현, 문제웅(2013)의 연구 결과에서 도출한 공통방법인 ‘문장의 길이 조절’을 제시할 수 있다.

#### 4. 전자매체 활성화를 고려한 문학번역 방법

많은 학자들은 문학작품에서 작가의 의도가 문체(형식)에 담겨 있기 때문에 문학번역을 할 때는 내용만큼이나 형식도 중요하다면서 내용과 형식의 충실한 번역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시대와 매체가 변하면서 인간의 사고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들이 늘어나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여러 매체에 빠져 책에 등을 돌리고 있는 대중을 잡기 위해 출판사들은 책의 형태를 더 이상 종이에만 국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출판 산업은 전자책이나 웹진으로 그 형태를 전환하면서 발 빠른 변화를 찾고 있다. 따라서 전자매체에 익숙해진 대중들의 기호에 맞는 문학번역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한정해, 독자들의 실정에 맞는 문학번역 방법이 필요해졌다는 취지하에 실험연구를 통해 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4.1 문장의 길이에 대한 독자 수요 연구 방법

전자매체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읽기 편한 소설의 문장길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으로 전자매체에 노출량이 다른 세대 간 비교를 위해 성인독자 70명(20대: 43명, 30대: 16명, 40대: 11명)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에 구성된 텍스트는 19세기 영미소설과 20세기 영미소설에서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정희연(2018)에서 조사한 영미소설 18권의 텍스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장 긴 문장으로 조사된 문장길이를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문장길이를 갖춘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또, 여전히 고전소설이 권장도서로 추천되고 있지만 독자들이 읽기 어려워하는 점을 고려해, 고전소설의 특징 중 하나인 긴 문장길이를 어느 정도로 줄였을 때 가독성이 높은지 알아보하고자 하여 19세기 작품도 포함시켰다. 설문지에 사용된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6) 내재적 인지부하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많고 적음에 따른 인지부하를 뜻하며, 외생적 인지부하는 외부에서 가하는 방법에 따른 인지부하를 뜻한다.

〈표 2〉 설문지 구성 텍스트

1	ST	Austen, Jane (1970) <i>Pride and Prejudice</i> , New York: Oxford UP.
	TT	윤지관, 전승희 옮김 (2016) 『오만과 편견』, 서울: 민음사.
2	ST	Austen, Jane (2002) <i>Sense and Sensibility</i> ,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TT	윤지관 옮김 (2006) 『이성과 감성』, 서울: 민음사.
3	ST	Wharton, Edith (1974) <i>The Age of Innocence</i> , Harmondsworth, Middlesex, England: Penguin Books.
	TT	송은주 옮김 (2008) 『순수의 시대』, 서울: 민음사.
4	ST	Fitzgerald, F. Scott (1925) <i>The Great Gatsby</i> , New York: Scribner.
	TT	김옥동 옮김 (2003) 『위대한 개츠비』, 서울: 민음사.

설문지는 번역본 3종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sup>7)</sup>. 우선 원문의 문체에 가장 충실한 번역본 1종을 선정한 다음, 충실한 번역본 1종을 기본으로 두고 1900년대 초반 한국소설의 평균 단어 수와 유사한 단어 수(11단어 내외)로 변형한 제2의 번역본과 1900년대 후반 한국소설의 평균 단어 수와 유사한 단어 수(9단어 내외)로 변형한 제3의 번역본을 만들었다<sup>8)</sup>. 임의로 만든 번역본은 번역 및 문학전문가 각각 1명과 상의하여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텍스트를 완성하였다. 설문지에 사용된 텍스트의 선정기준은 해당 번역본 내에서 한 문단의 평균 문장길이가 20단어 내외로 구성된 문장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문장의 길이 이외에 다른 요소로 인해 가독성 여부가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충실한 번역본에서 문장의 길이에만 변화를 주어 나머지 번역본을 설계하였다. 또한 설문결과와 형평성을 고려해 문장 내 평균 단어 수에 관한 정보는 주지 않았으며, 총 4개의 세트별로 TT1, TT2, TT3의 순서도 무작위로 달리 하였다. 또 설문응답자에게 원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번역본만 제공하여 비교분석하도록 제시했다.

설문지에는 먼저 응답자의 성별, 나이, 전공에 관한 기본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소설 미디어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였다. 앞서 살펴본 4개 세트의

7) 설문지 전문은 부록에 상세히 기입하였음.

8) 본고에 사용된 한국소설 및 영미소설의 평균 단어 수 정보는 정희연(2018)을 참고할 것.

번역비교평가를 위해 세트별 번역본 각각에 다음의 질문을 조사하였다.

〈표 3〉 Set별 문장 선호도 질문 리커트 척도표

1	위 글은 읽기가 쉽다.	0	1	2	3	4
2	위 글은 이해하기가 쉽다.	0	1	2	3	4
3	위 글은 문학적으로 읽힌다.	0	1	2	3	4
4	위 글은 흥미로웠다.	0	1	2	3	4
5	위 글은 이어서 계속 읽고 싶다.	0	1	2	3	4

각각의 번역본마다 가독성, 이해도, 문학텍스트로 읽히는지의 여부, 흥미도, 앞으로 더 읽고 싶은 기대감 여부 등 5가지 질문을 리커트 척도 0에서 4로 매겨 현시대 한국독자들이 영미문학작품의 번역본을 읽을 때 가장 선호하는 문장 길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세트별 TT1, TT2, TT3에 관한 추가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개방형 질문을 제공하였다.

설문지 자료 분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계 프로그램(SPSS 18.0)을 이용하였다. 첫째, 독자들의 문장길이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의 문항 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Cronbach's alpha)을 하였다. 둘째, 각각 세트에 포함된 TT1, TT2, TT3 세 집단 간 선호도 질문(가독성, 이해도, 문학적 여부, 흥미도, 추가로 읽고 싶은지 여부)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후검정 다중 비교(post-hoc; Tukey HSD)를 실시하였다. 셋째, 각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TT1, TT2, TT3 세 집단 간 연령별 차이와 소설 미디어 사용유무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후속 검사(post-hoc; Tukey HSD)를 한 번 더 실시하였다. 이 모든 분석 또한 유의확률 .05에서 판단하였다.

#### 4.2 소설의 문장길이에 따른 목표독자의 인식 결과

짧아진 소설의 문체와 전자매체의 글 유형이 현시대 독자들과의 사고에 실제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자들과의 문장길이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의 문항 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800년대 작품의 번역본 설문지의 문항 간 신뢰도 계수는 .89로 높은 편이었으며, 1900년도 작품의 번역본 설문지의 문항 간 신뢰

도 계수도 .88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지를 토대로 전체 70명의 독자들에게 조사한 문장길이 선호도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독자들의 문장길이 선호도(총 70명)

	TT	인원수 (N)	평균 (M)	사후검정 (단위: 단어 수)
1800년대 번역본	1	70	2.20	TT2>TT1 (P=.010) (11>9)
	2	70	2.51	
	3	70	2.08	TT2>TT3 (P=.000) (11>15)
1900년대 번역본	1	70	2.12	TT2>TT1 (P=.000) (11>8)
	2	70	2.56	
	3	70	2.24	TT2>TT3 (P=.003) (11>17)

N=인원수, M=선호도 평균, P=유의확률

1800년대 번역본의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 독자들은 평균 11단어로 구성된 문장길이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9단어로 구성된 짧은 글보다 11단어로 구성된 글을 선호하고, 15단어로 구성된 긴 글보다도 11단어로 된 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00년대 번역본의 선호도 결과 역시 평균 8단어로 된 짧은 문장길이와 평균 17단어로 구성된 긴 문장길이보다 평균 11단어로 구성된 문장길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독자들에게 평균 9단어 이하로 구성된 글보다 11단어로 구성된 글이 더 쉽게 읽힌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류지현(2011)의 텍스트 줄 길이가 인지부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텍스트의 줄 길이는 읽기 자료를 입력받는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가독성 요인으로, 줄 길이가 길게 제시되는 경우와 짧게 제시되는 경우에 따라서 읽기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인쇄글자의 경우에는 한 줄에 70cpl<sup>9)</sup>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독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류지현 2011: 403). 줄 길이와 관련된 읽기 속도의 문제에 대하여 링과 반 샤이크(Ling & van Schaik 2006)의 연구에서는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읽기 속도를 촉진시

키기 위해서는 줄 길이를 길게 만드는 것(85-100cpl)이 좋은데, 줄 길이를 길게 만들면 빠르게 스캔하면서 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다만 글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면 줄 길이를 짧게 하는 것(55-70cpl)이 좋은데, 줄 길이를 짧게 만들어주면 읽기속도는 느려지지만 글의 내용을 완전하게 읽게 된다는 것이다. 다이슨과 하셀그로브(Dyson & Haselgrove 2001)는 줄 길이 조건에 관한 연구에서 55cpl이나 100cpl이 25cpl보다 읽기 속도가 빠르다고 보고하였고, 링과 반 샤이크(Ling & van Schaik 2006)는 70cpl, 85cpl, 100cpl이 55cpl보다 읽기 속도가 빨랐다고 보고하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와 인지부하이론의 줄 길이 연구결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인지부하이론의 줄 길이 연구에서 짧거나 긴 글에 가독성이 떨어졌다는 결론과 본 연구의 설문조사응답에서 가장 짧은 글 구성과 가장 긴 글 구성을 독자들이 선호하지 않은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 4.3 연령별 문장길이에 따른 독자 선호도 결과

4.2장의 통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독자들은 평균 11단어로 된 문장을 선호했다. 평균 11단어로 구성된 텍스트는 원문의 형태보다 짧게 번역된 텍스트이지만, 한국독자들에게는 오히려 원문에 충실한 번역 텍스트보다 다소 짧아진 번역 텍스트를 더 선호하는 것이다. 이 현상의 원인을 전자매체의 활성화로 보고, 인쇄매체에 익숙한 세대(40대 이상)와 전자매체에 익숙한 세대(20대) 간에 문장길이에 따른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20대, 30대, 40대 집단과 문장길이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9) cpl: characters per line, 빈 칸을 포함하여 한 줄에 표기되는 글자의 수.

〈표 5〉 연령별 문장길이 선호도

	연령	TT	N	M	사후검정(단위: 단어 수)
1800년대 번역본	20대	1	43	2.06	TT2>TT1 (P=.040) (11>9) TT2>TT3 (P=.014) (11>15)
		2	43	2.38	
		3	43	2.01	
	30대	1	16	2.21	TT2>TT3 (P=.011) (11>15)
		2	16	2.66	
		3	16	2.02	
	40대	1	11	2.70	-
		2	11	2.75	
		3	11	2.48	
1900년대 번역본	20대	1	43	2.01	TT2>TT1 (P=.001) (11>8) TT2>TT3 (P=.045) (11>17)
		2	43	2.46	
		3	43	2.16	
	30대	1	16	2.08	TT2>TT1 (P=.018) (11>8)
		2	16	2.68	
		3	16	2.22	
	40대	1	11	2.60	-
		2	11	2.77	
		3	11	2.40	

연령별 문장길이 선호도를 살펴보면, 1800년대 영미소설 번역본 비교에서는 20대의 경우 평균 11단어로 된 문장을 평균 9단어와 평균 15단어로 된 문장보다 선호하며, 30대의 경우, 평균 11단어로 된 문장을 평균 15단어로 된 문장보다 선호하고 있다. 반면에, 40대의 경우 문장 길이와 텍스트 선호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00년대 영미소설 번역본 선호도 조사에서는 20대의 경우 평균 11단어로 된 문장을 평균 8단어와 평균 17단어로 된 문장보다 선호하였으며, 30대는 평균 11단어로 된 글을 평균 8단어로 된 짧은 글보다 선호하고 있다. 이에 반해, 40대 집단의 경우는 문장의 길이가 텍스트 선호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선호도를 종합해 본 결과, 20대와 30대 집단에서는 문장의 길이가 텍스트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40대 집단의 경우는 문장의 길이가 텍스트 선택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매체가 변하면서 뇌가 변한다는 카의 주장을 이 결과에 대입해봤을 때, 20

대와 30대 집단이 40대 집단보다 전자매체의 사용이 잦고, 더 이른 시기에 전자매체에 노출된 것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령분석 결과만으로 그 원인을 전자매체 탓으로 추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응답자의 사전질문인 ‘소셜 미디어의 사용유무’ 결과와 비교해서 실제로 전자매체의 사용 유무가 문장길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연령별 선호도와도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 4.4 전자매체의 이용여부에 따른 독자의 문장길이 선호도 결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는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의 전자매체이다. 소셜 미디어의 특징은 모니터 상에서 글을 읽어야 하며, 쓸 수 있는 글의 길이가 짧게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의 사용 유무와 사용빈도에 따라 독자들의 글 읽기에 다소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6>은 문장길이의 선호도와 소셜 미디어의 사용유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표이다.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은 집단과 사용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 차이를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 6〉 문장길이 선호도와 소셜 미디어 사용여부의 상관관계

	소셜 미디어	TT	N	M	P	사후검정(단위: 단어)
1800년대 번역본	사용	1	57	2.24	.000	TT2>TT1 (P=.018) (11>9) TT2>TT3 (P=.000) (11>15)
		2	57	2.53		
		3	57	2.09		
	미사용	1	13	2.05	.260	-
		2	13	2.41		
		3	13	2.04		
1900년대 번역본	사용	1	57	2.19	.000	TT2>TT1 (P=.001) (11>8) TT2>TT3 (P=.002) (11>17)
		2	57	2.56		
		3	57	2.22		
	미사용	1	13	1.82	.035	TT2>TT1 (P=.025) (11>8)
		2	13	2.55		
		3	13	2.33		

1800년대 영미소설의 번역본 선호도 결과를 살펴 본 결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평균 11단어로 된 문장을 평균 9단어 및 평균 15단어로 구성된 글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문장길이가 텍스트 선호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00년대 영미소설의 번역본 선호도 결과를 살펴 본 결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평균 11단어로 된 문장을 평균 8단어 및 평균 17단어로 구성된 글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평균 11단어로 된 글을 평균 8단어로 된 짧은 글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균 11단어로 된 글과 평균 17단어로 된 글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종합해보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집단은 11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선호하고 있지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집단은 11단어로 구성된 문장과 그 이상으로 구성된 장문 역시 비슷한 정도로 읽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소셜 미디어 사용여부가 문장길이의 선호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 결과를 통해 전자매체의 노출이 많은 미래세대에게 미칠 영향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현재 20대의 경우 15세 미만의 어린나이 때부터 최소 10년 이상을 인터넷과 휴대폰, 소셜 미디어에 노출된 집단이며, 30대의 경우 15세 이상의 나이 때부터 혹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새로운 미디어에 노출된 집단이다. 반면, 40대의 경우는 모두 20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새로운 미디어에 노출되었고, 노출 빈도 또한 20대나 30대에 비해서 낮을 확률이 높다. 이 결과를 2장에 언급했던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 연결해보면 연령에 따라 뇌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20대가 40대보다 글을 읽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긴 글을 읽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전자매체의 사용이 보다 적은 40대는 전자매체 사용이 보다 많은 20대보다 긴 글에 부담을 덜 느끼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40대 독자들보다는 20대, 30대 독자들이 긴 글에 취약하다는 결과를 통해 현재 10대 청소년 및 그보다 더 어린 연령의 잠재독자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보다 두드러질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령별 인터넷 사용량<sup>10)</sup> 조사에 의하면 1위는 10대(100%), 2위는 20대(99.9%), 30대(99.8%) 순이었다. 놀라운 것은 3세에서 9세

까지 아동의 인터넷 사용량이 2016년 82.9%로 2013년 80.1%보다 2.8% 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유추해보면, 미래의 독자들은 인터넷 매체에 완전히 적응된 잠재독자들로, 이들의 사고는 현재보다도 더 인터넷 매체에 최적화된 사고를 갖게 될 것이다.

## 5. 목표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한 문학번역 전략

4장의 설문결과를 통해 일반 대중들은 평균 11단어로 구성된 텍스트를 가장 선호하였다. 설문응답자들이 해당 텍스트를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함께 조사하였으며, TT1, TT2, TT3 중에 가장 잘 읽히는 글이 무엇이며, 왜 그러한지 이유를 알아보았다. 설문응답자 중에서 31세 영어영문학과 졸업생 설문자와 22세 영어영문학과 여학생의 경우, 영문학 전공 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작품을 읽는 데에 있어서 “작품이 담고 있는 흥미를 느끼면서 읽기보다는 줄거리만 빨리 읽어내고 싶다. 그래서 문장이 가독성을 저해할 수준의 길이로 구성된 글은 기피하게 된다”고 했다. 개방형 질문의 답변을 토대로 독자들이 문장길이에 따른 가독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고, 가독성 높은 문학번역방법을 제시해 볼 수 있다.

22세 문예창작학과 여학생(A)은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문장을 나누지 않고 한 문장으로 길게 쓰면, 읽는 데 호흡이 많이 들어가서 가독성이 떨어진 다”라는 의견과 “단문은 깔끔하지만 ‘-다’로 끝나는 어미가 반복되는 게 단점이며 장문은 매끄럽게 연결된다고 해도 구구절절하게 늘어지는 게 단점이다”고 평했다. 또 다른 22세 문예창작학과 여학생(B)은 “[단문+단문]구조라면 훨씬 읽기가 편하다. 연속적인 장문구조는 읽기 어렵다”고 추가설명을 덧붙였다. 29세 경영학과 여학생, 25세 철도건설시스템 남학생, 23세 언론영상학과 여학생은 “계속해서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글, 그와는 반대로 계속해서 긴 문장으로 구성된 글은 글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답했다. 이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설

10)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26740/age-composition-of-internet-users-in-south-korea/>

문지에 실제 사용한 예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서 문장길이와 가독성의 관계를 살펴보겠다<sup>11)</sup>.

(1) [TT] (C)그녀는 자기 언니보다 관찰력이 예리하고 성격도 더 간간한 데다, 누가 관심을 가져준 탓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도 없었으니, 그 여자들이 좋게 봐줄 마음이 별로 없었다. (D)그들은 사실 매우 세련된 숙녀들로, 기분이 좋을 때는 씩씩하게 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상냥해질 수 있었다. (E)그러나 거만하고 잘난 체했다. (F)그들은 예쁜 편이었고, 런던에 있는 일류 사립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2만 파운드의 재산이 있었는데, 분수에 넘치게 소비하며 지체 높은 사람들하고만 사귀는 습성이 있었다.

(윤지관, 전승희 옮김 2016, 25)

(1) [TT] 역시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해 원문을 나누어 번역한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되었다. 하지만 실제 설문조사에서 독자들은 해당 텍스트를 선호하지 않았다. 이 텍스트를 선호하지 않은 이유로 연속된 장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글이 쉽게 읽히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는데, 실제로 (1) [TT]의 (C)장문(24단어), (D)장문(15단어), (F)장문(21단어)<sup>12)</sup>으로 연속적으로 장문이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1) [TT]의 연속적인 장문을 단문과 장문이 섞인 문장으로 다시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독자들이 가장 선호한 텍스트인 (2) [TT]를 분석해보겠다.

11) 부록2에 분석 데이터 전문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정성적 연구에서는 편의를 위해 번역본의 수정된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살펴보도록 한다.

12) <신문 글 바꾸기>에 따르면 한국의 이름난 칼럼의 문장 평균 길이가 과거에는 40-50자였으나 현대에는 22자 정도로 짧아지는 추세이다(박선희 2008: 10). 기사문의 특징이 단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22자를 단문의 기준으로 두고, 50자 이상을 장문으로 구분하여 단어수와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글자 수 50자 이상부터는 평균 단어 수가 17단어 이상으로 장문, 30자 이상 40자 내외로 쓰인 글의 평균 단어 수 11단어-12단어로 중문, 30자 미만의 글은 10단어 이하의 단문으로 구분하였다. 글자 수와 단어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님으로, 평균 단어 수 15자를 기준으로 장문과 중문을 구분하였으며, 평균 단어 수 10자를 기준으로 단문과 중문을 구분하였다.

(2) [TT] (C)그녀는 자기 언니보다 관찰력이 예리하고 성격도 더 간간한 데다, 누가 관심을 가져준 탓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이 없었다. (C') 그래서 그 여자들을 좋게 봐줄 마음이 별로 없었다. (D)그들은 사실 매우 세련된 숙녀들로, 기분이 좋을 때는 씩씩하게 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상냥해질 수 있었다. (E)그러나 거만하고 잘난 체했다. (F)그들은 예쁜 편이었고, 런던에 있는 일류 사립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F') 그리고 2만 파운드의 재산이 있어서, 분수에 넘치게 소비하며 지체 높은 사람들하고만 사귀는 습성이 있었다.

(수정안)

(1)의 [TT]에서 (C)와 (F)의 긴 문장을 (2)에서는 각각 두 문장으로 나누어 재구성하였다. (2)의 문장 구성은 (C)장문(17단어), (C')단문(8단어), (D)장문(16단어), (E) 단문(4단어), (F)중문(14단어), (F')중문(14단어)으로 구성하여 장문과 단문이 번갈아 나오는 형식을 취해 독자들의 인지부담을 줄였다. 이렇게 20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장문을 두 문장으로 적절히 나눠 문장을 구성하였더니 독자의 가독성이 올라갔다.

장문의 글을 중문과 단문으로 나누어 번역함으로써 독자의 가독성을 높인 또 다른 사례도 살펴보겠다.

(3) [TT1] (A)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부자는 언제나 이상할 정도로 말없이도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보다 훨씬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B)그래서 나는 모든 일에 판단을 유보하는 버릇이 생겼고, 그 때문에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자주 나에게 다가오는 바람에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사람들에게 적잖이 시달려야 했다. (이하 생략)

(김육동 옮김 2003: 57)

[TT2] (A)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부자는 언제나 이상할 정도로 말없이도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A')또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보다 훨씬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B)그래서 나는 모든 일에 판단을 유보하는 버릇이 생겼고, 그 때문에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자주 나에게 다가왔다. (B')그 바람에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사람들에게 적잖이 시달려야 했다.

(수정안)

(3)의 [TT1] 역시 연속적인 장문 (A) 26단어, (B) 23단어로 서술했다. 이를 각각 2문장으로 나눠서 [TT2]처럼 (A) 15단어 (A') 12단어로, (B) 16단어, (B') 8단어로 구성하면, 연속적으로 쓰인 장문을 장문, 중문, 단문으로 적절히 섞어서 문장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구성이 독자들의 인지부하를 낮추면서 읽기 쉬운 글 유형이 된다.

위의 두 예문을 통해 종합해 본 결과, 독자들의 인지부하를 줄여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20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문장은 두 문장 이상으로 나누고, 장문과 단문이 순차적으로 잘 섞인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연속해서 단문으로 구성된 글 또한 독자들의 가독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단문의 구성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실제 설문지에 사용된 텍스트 중에서 연속적인 단문으로 구성된 예문을 통해 독자들의 가독성을 저해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 (4) [TT1] (D)그들이 만나 감격하는 것을 보고 엘리너도 기뻐지만, 다만 메리앤이 잠을 더 자지 못할까 봐 걱정되었다. (E)그러나 대시우드 부인은 자식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경우에는 침착할 줄 알았고 신중해질 수조차 있었으며, 메리앤은 어머니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서 만족하였고 또 너무 허약해서 대화가 곤란하다는 것을 의식하고서 주위에서 간호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기꺼이 조용히 안정을 취하게 되었다.  
(윤지관 옮김 2006: 444)

[TT2] (D)그들이 만나 감격하는 것을 보고 엘리너도 기뻐다. (D')다만 메리앤이 잠을 더 자지 못할까 봐 걱정되었다. (E)그러나 대시우드 부인은 자신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경우에는 침착할 줄 알았고 신중해질 수 있었다. (E')그러나 메리앤은 어머니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서 만족하였다. (E'')또 너무 허약해서 대화가 곤란하다는 것을 의식했다. (E''')그래서 주위에서 간호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기꺼이 조용히 안정을 취하게 되었다.

(수정안)

(4)의 [TT2]는 [TT1]을 가장 짧은 글 유형으로 변형시킨 예문이다. [TT2]의 문장구조를 살펴보면 <7단어, 8단어, 14단어, 8단어, 7단어, 11단어>로 연속해

서 단문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예문은 4.2장의 설문결과에서 살펴본 듯이 독자들이 선호하지 않은 텍스트였다. 이를 통해 장문으로 구성된 [TT1]과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단문으로 문장을 구성할 경우에도 독자들의 가독성과 이해도에 방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2세 문예창작학과 여학생(C)과 29세 경영학과 여학생은 개방형 질문에 “접속사로 계속해서 연결된 단문의 나열은 오히려 문장을 읽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한 것과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속적인 단문이 가독성을 저해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다.

- (5) [TT1] (B)아무도 보퍼트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개인적으로 큰 곤경에 처한다 해도 그리 안타깝지는 않았지만, 그가 처가에 재정적인 불명예를 안겼다는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의 적일지라도 좋아할 수만은 없었다.

(송은주 옮김 2008: 319)

[TT2] (B)보퍼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B')그러나 그가 개인적으로 큰 곤경에 처한다 해도 그리 안타깝지는 않았다. (B'') 하지만 그가 처가에 재정적인 불명예를 안겼다는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B''')그래서 그의 적일지라도 좋아할 수만은 없었다.  
(수정안)

(5)[TT1]의 (B)는 27단어로 구성된 장문인데, 이를 [TT2]에서는 4문장으로 쪼개어 연속적인 단문으로 구성하였다. [TT2]와 같은 연속된 단문 구성은 가독성은 높일 수는 있으나 독자의 내용 이해를 떨어뜨리게 만든다. 실제로 27세 경영학과 여학생은 “문장이 너무 딱딱 끊어져서 읽기는 쉬웠지만 내용 전달은 잘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위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22세 문예창작학과 여학생(C)의 “길고 짧은 문장들이 문맥에 맞춰 적당히 섞이게 구성되어 있는 글이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인다”는 개방형 질문의 답변을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 있다. 독자들이 가장 선호했던 평균 11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단문과 장문이 적절히 섞여 있고, 그러한 글의 구성이 독자들에게 인지부하를 높이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장하늘(2006: 167)은 좋은 글 만드는 방법으로 접속어는 최소로 사용하고 주어와 술어의 거리를 좁히고, 복문의 단문화를 권하고 있다. 그의 방법론을 위의 예시들과 대입해보면, 복문을 두 개의 단문으로 나누면서, 주어와 술어의 거리가 좁아질 수 있게 만드는 대신, 접속어 사용을 최소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단문으로 나누는 것은 피하는 것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즉, 20 단어 이상의 장문을 두 개의 단문으로 나누는 정도는 용인되나, 세 개 이상의 단문으로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문장이 될 수 없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몽테뉴(Michel de Montaigne)는 “싫증나는 문장보다 배고픈 문장을 쓰라”고 했다(장하늘 2006: 154 재인용). 4.3장 서두에 언급했듯이, 문학작품의 흥미를 느끼기보다는 내용만 빨리 알아내길 원하는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몽테뉴의 글 쓰기 방법을 택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특히, 주로 단문으로 쓰이는 전자매체 글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길고 장황하게 늘어진 문장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방향감 상실이 높기 때문에 글을 읽는 데 금방 지치게 된다. 보다 짙막한 글이 독자들에게는 쉽게 읽히기 때문에 글 읽기가 더욱 흥미롭게 된다. 그러므로 대중성을 고려하여 문학번역을 할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실제 독자들의 정성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20단어 이상으로 된 복문의 경우 두 문장으로 나누고, 장문과 단문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구성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 6. 결론

전자매체에 노출되는 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곧, 전자매체의 노출이 많은 연령대의 독자들은 짧고 함축적인 글 읽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길고 장황하게 쓰인 글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또 전자매체는 인쇄매체보다 눈의 피로도가 높고 전자기기의 물리적 상황으로 인해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쇄매체보다 전자매체로 글을 읽을 때 가독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번역방법에 적용해볼 때, 전자매체에 익숙해진 목표독자들의 인지부하는 타국의 문화·역사적 배경지식까지 더해져 보다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전자매체에 익숙한 목표독자들이 외국문학작품과 친해지게 하는 방법으로는 문장의 길이 조정을 통해

가독성 높은 번역문을 제공함으로써 목표독자들의 인지부하를 낮춰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에 언급된 현상들에 의해 목표독자들의 높아진 인지부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실제 한국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를 통해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0대부터 40대 성인 남녀 70명을 대상으로 문장의 길이가 서로 다른 번역본 3종의 선호도 비교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독자들이 평균 11단어로 구성된 문장의 길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그보다 짧은 평균 9단어로 구성된 글과 그보다 긴 평균 16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글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은 개방형 질문에 가독성과 이해도 면에서 평균 11단어로 구성된 글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나, 평균 9단어 및 16단어로 구성된 글은 가독성과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답하였다. 전체 결과를 토대로 연령별 문장길이 선호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평균 11단어로 구성된 글을 평균 9단어 및 16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글보다 선호하였으나, 40대의 경우에는 문장길이에 따라 독자들의 선호도가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연령별로 전자매체의 노출시기와 노출빈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매체와 문장길이 선호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하고자 보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설문응답자 70명의 사전질의 응답란에 소셜 미디어 사용실태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연령에서 대부분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대 집단에서 사용여부가 가장 높았으며, 40대 집단은 사용여부가 낮았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소셜 미디어 사용여부에 따라 문장길이와 선호도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조사한 결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 집단과 사용하지 않는 집단 간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평균 11단어로 구성된 번역본이 가장 읽기 쉽고 이해가 잘 되어 해당 글을 가장 선호한 반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집단은 문장길이가 텍스트 선호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전자매체에 노출이 많을수록 전자매체에서 사용하는 글 유형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여러 이론들이 실제 연구결과를 통해 뒷받침되었다.

해당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전자매체의 보급화로 인해 독자들은 전자매체 글 유형에 익숙해졌고,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독자들에게 소비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소설은 문체를 변화시켜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정희연(2018)에서 조사한 시대별 소설의 문체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실제로 소설은 시대가 변하면서 짧은 문체로 변했다. 작가의 권위가 상당히 높았던 소설이 점차 독자중심으로 문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학번역 또한 독자중심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전자매체의 노출 여부에 따라 문장길이 별로 독자들의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자매체에 노출이 많은 현시대 또는 미래의 독자들을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소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원문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기존 문학번역방법에서 가독성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시점이 된 것 같다. 다시 말해, 가독성이 높은 글 길이로 형태를 조정해서 좋은 문학작품이 보다 많은 한국독자들에게 읽힐 수 있게 도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곤 (1996) 『뉴미디어 시대의 문학』, 서울: 민음사.  
 김성모 (2003) 『인터넷 글쓰기: 웹진 이메일 게시판 홈페이지 온라인 신문』, 서울: 서울출판미디어.  
 류지현 (2009) 「학습자의 전문성 수준과 과제난이도가 인지부하요인 및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5(4): 1-19.  
 류지현 (2010b) 「과제유형과 화면설계방식이 인지부하요인의 과제난이도 지각과 정신적 노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연구』 26(2): 1-23.  
 류지현, 문계웅 (2013) 「학습용 전자책의 텍스트 길이와 정보탐색 유형이 시선 고정 시간, 인지부하, 학습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19(3): 293-313.  
 류지현 (2011) 「텍스트 줄 길이와 근접성 원리가 과제유형에 따라서 인지부하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공학회』 27(2): 401-425.  
 박선홍 (2008) 『신문 글 바꾸기』, 서울: LG상남언론재단.  
 연합뉴스 (2010.2.28.) 인터넷 속 문학의 향연: 웹진 전성시대  
<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10/02/26/0902000000AKR201002262>

- 이기우, 임명진 옮김 (2000)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Walter Ong (1982) *Orality and Literacy*, London: Routledge)  
 장미영 (2012) 「소설과 미디어콘텐츠의 상호매체성-2000년 이후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52: 255-286.  
 장하늘 (2006) 『글 고치기 전략』, 서울: 다산초당.  
 정희연 (2018) 「전자매체 시대의 문학번역 전략」,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맹기 (2004)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최병우 (2006) 「전자매체시대의 독자」, 『독서연구』 16: 55-75.  
 최혜길 옮김 (2011)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서울: 청림출판. (Nicholas Carr (2010) *The Shallows: what the Internet is doing to our brains*, New York: W. W. Norton)  
 Amber Pariona (2017) 'Countries Where People Spend The Most Time Online', Worldatlas, 25 April. Available at <http://www.worldatlas.com/articles/top-countries-which-spend-the-greatest-amount-of-time-online.html>  
 Chall, J. Stemlicht, and Edgar, Dale (1995) *Readability Revisited, the New Dale-Chall Readability Formula*, Cambridge: Brookline Books.  
 Clark, C. Ruth, and Richard, E. Mayer (2011) *E-Learning and the Science of Instruction: Proven Guidelines for Consumers and Designers of Multimedia Learning*, San Francisco, CA: Pfeiffer.  
 Dale, Edgar, and Stemlicht, J. Chall (1949) 'The Concept of Readability', *Elementary English* 26: 23.  
 Dyson, C. Mary, and Mark, Haselgrove (2001) 'The influence of reading speed and line length on the effectiveness of reading from screen', *Human-Computer Studies*, 54: 585-612.  
 Internet Live Stats (2016) 'Internet Users by Country (2016)', Internet Live Stats, 1 July. Available at <http://www.internetlivestats.com/internet-users-by-country/>  
 James, William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Vol. 1, New York: Holt.  
 Kolb, Brian (2009) 'Brain and behavioral plasticity in the developing brain:

Neuroscience and public policy', *Paediatrics & Child Health* 14(10): 651-652.

Ling, Jonathan, and Paul, van Schaik (2006) 'The influence of font type and line length on visual search and information retrieval in web page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64(5): 395-404.

Richards, C. Jack, John, T. Platt, and Heidi Platt (1992) *Longman Dictionary of Language Teaching and Applied Linguistics* London: Longman.

Statista (2018) 'Internet usage rate in South Korea from 2013 to 2017, by age group', Statista, May. Available at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26740/age-composition-of-internet-users-in-south-korea/>

Sweller, John (1988) 'Cognitive load during problem solving: Effects on learning', *Cognitive Science* 12: 257-285.

Young, Z. John (1951) *Doubt and Certainty in Science: A Biologist's Reflections on the Brai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분석 대상 도서>

김옥동 옮김 (2003) 『위대한 개츠비』, 서울: 민음사.

송은주 옮김 (2008) 『순수의 시대』, 서울: 민음사.

윤지관, 전승희 옮김 (2016) 『오만과 편견』, 서울: 민음사.

윤지관 옮김 (2006) 『이성과 감정』, 서울: 민음사.

[Abstract]

### A Study of the Literary Translation in the Age of Electronic Media

Jung, Hiyeon

(Woosong University)

Since literary criticism has been discussed with a focus on the intention of the writer and the internal meaning of the text until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literary translation methods and criticism have also been studied intensively in the intention, meaning, and style of the original text. However, as the Internet develops and the change in the field of literature has turned to online, the style of literature has changed significant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literary translation method and translation criticism in the age of the electronic media.

In this regar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ngth of sentences preferred by readers in the electronic media era and suggests a method of literary translation that is highly readable. As a method, we conducted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preferences of three translations of different lengths of sentences in 70 Korean adults from twenties to forties. As a result, most of the readers preferred an average length of 11 words. Especially the readers who were exposed to electronic media a lot preferred an average of 11 words, but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length and preference of the readers who were not used a lot.

Therefore, to attract current or future readers who are exposed to electronic media into novels(whether paper books or electronic books), it is about time to give positive consideration to the readability factor in the existing literature translation methods which requires faithfulness of the original text. In other words, we need to find ways to help readers to read more foreign literary works by translating them into highly readable sentence lengths.

▶ Key Words: literary translation, electronic media, readability, cognitive load

▶ 주제어: 문학번역, 전자매체, 가독성, 인지부하

정희연

우송대학교 시간강사

hiyeon.j@hanmail.net

관심분야: 문학번역

논문투고일: 2018년 8월 15일

심사완료일: 2018년 9월 10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27일

부록1. 설문지

본 설문지는 글의 길이에 따른 독자의 선호도 및 추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질문을 자세히 읽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하지 않은 항목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을 읽는 동안 해당 질문에 느끼는 대로 (0, 1, 2, 3, 4)를 선택해주세요.**

0 = 전혀 그렇지 않다 1 =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 약간 그렇다  
3 = 대체로 그렇다 4 = 매우 그렇다

1	성별:	2.	나이:	3.	전공:
4	나는 Social Media를 사용한다.			YES	NO

Set 1. 다음 지문을 읽고 답해주십시오.

TT1: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수궁이 가지는 않았다. 무도회 날 그들의 행동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언니보다 관찰력이 예리하고 성격도 더 간간했다. 또 누가 관심을 가져준 탓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좋게 봐줄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들은 사실 매우 세련된 숙녀들로, 기분이 좋을 때는 짹짹하게 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상냥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거만하고 잘난 체했다. 그들은 예쁜 편이었고, 런던에 있는 일류 사립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2만 파운드의 재산이 있어서, 분수에 넘치게 소비하며 지체 높은 사람들하고만 사귀는 습성이 있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자신들을 높게 보고, 남을 천하게 볼 자격이 있다고 여겼다. 그들은 잉글랜드 북부의 양갓집 출신이었다. 이 사실이 자기 남매들의 재산이 장사로 번 것이라는 사실보다 그들의 뇌리에 더 깊이 박혀 있었다.

1	위 글은 읽기가 쉽다.	0	1	2	3	4
2	위 글은 이해하기가 쉽다.	0	1	2	3	4
3	위 글은 문학적으로 읽힌다.	0	1	2	3	4
4	위 글은 흥미로웠다.	0	1	2	3	4
5	위 글은 이어서 계속 읽고 싶어진다.	0	1	2	3	4

TT2: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수궁이 가지는 않았다. 무도회 날 그들의 행동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언니보다 관찰력이

예리하고 성격도 더 간간한 데다, 누가 관심을 가져준 탓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도 없었으니, 그 여자들을 좋게 봐줄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들은 사실 매우 세련된 숙녀들로, 기분이 좋을 때는 씩씩하게 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상냥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거만하고 잘난 체했다. 그들은 예쁜 편이었고, 런던에 있는 일류 사립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2만 파운드의 재산이 있었는데, 분수에 넘치게 소비하며 지체 높은 사람들하고만 사귀는 습성이 있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자신들을 높게 보고, 남을 천하게 볼 자격이 있다고 여겼다. 그들은 잉글랜드 북부의 양갓집 출신이었는데, 이 사실이 자기 남매들의 재산이 장사로 번 것이라는 사실보다 그들의 뇌리에 더 깊이 박혀 있었다.

1	위 글은 읽기가 쉽다.	0	1	2	3	4
2	위 글은 이해하기가 쉽다.	0	1	2	3	4
3	위 글은 문학적으로 읽힌다.	0	1	2	3	4
4	위 글은 흥미로웠다.	0	1	2	3	4
5	위 글은 이어서 계속 읽고 싶어진다.	0	1	2	3	4

TT3: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수궁이 가지는 않았다. 무도회 날 그들의 행동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언니보다 관찰력이 예리하고 성격도 더 간간한 데다, 누가 관심을 가져준 탓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좋게 봐줄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들은 사실 매우 세련된 숙녀들로, 기분이 좋을 때는 씩씩하게 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상냥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거만하고 잘난 체했다. 그들은 예쁜 편이었고, 런던에 있는 일류 사립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2만 파운드의 재산이 있어서, 분수에 넘치게 소비하며 지체 높은 사람들하고만 사귀는 습성이 있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자신들을 높게 보고, 남을 천하게 볼 자격이 있다고 여겼다. 그들은 잉글랜드 북부의 양갓집 출신이었는데, 이 사실이 자기 남매들의 재산이 장사로 번 것이라는 사실보다 그들의 뇌리에 더 깊이 박혀 있었다.

1	위 글은 읽기가 쉽다.	0	1	2	3	4
2	위 글은 이해하기가 쉽다.	0	1	2	3	4
3	위 글은 문학적으로 읽힌다.	0	1	2	3	4
4	위 글은 흥미로웠다.	0	1	2	3	4
5	위 글은 이어서 계속 읽고 싶어진다.	0	1	2	3	4

\* 주관식: TT1, 2, 3를 읽고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써주세요.

Set 2. 다음 지문을 읽고 답해주십시오.

TT1:  
대시우드 부인은 정신을 가다듬자마자, 가장 먼저 메리앤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리고 이 분 후에 그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있었다. 부채와 불행과 위험을 겪은 탓에 어느 때보다도 더 소중해진 터였다. 그들이 만나 감격하는 것을 보고 엘리너도 기뻐했다. 다만 메리앤이 잠을 더 자지 못할까 봐 걱정되었다. 그러나 대시우드 부인은 자신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경우에는 침착할 줄 알았고 신중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메리앤은 어머니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서 만족하였다. 또 너무 허약해서 대화가 곤란하다는 것을 의식했다. 그래서 주위에서 간호하는 사람들이 권하는 대로 기꺼이 조용히 안정을 취하게 되었다. 대시우드 부인은 한사코 둘째 딸 곁에서 밤을 새겠다고 했고, 엘리너는 어머니의 간청을 받아들여 자러 갔다. 그녀는 하룻밤을 뜯 눈으로 새웠고, 진을 빼게 하는 불안으로 몇 시간을 보냈으므로 휴식이 꼭 필요했다.

1	위 글은 읽기가 쉽다.	0	1	2	3	4
2	위 글은 이해하기가 쉽다.	0	1	2	3	4
3	위 글은 문학적으로 읽힌다.	0	1	2	3	4
4	위 글은 흥미로웠다.	0	1	2	3	4
5	위 글은 이어서 계속 읽고 싶어진다.	0	1	2	3	4

TT2:  
대시우드 부인은 정신을 가다듬자마자, 가장 먼저 메리앤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리고 이 분 후에 그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있었다. 부채와 불행과 위험을 겪은 탓에 어느 때보다도 더 소중해진 터였다. 그들이 만나 감격하는 것을 보고 엘리너도 기뻐했지만, 다만 메리앤이 잠을 더 자지 못할까 봐 걱정되었다. 그러나 대시우드 부인은 자식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경우에는 침착할 줄 알았고 신중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메리앤은 어머니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서 만족하였다. 또 너무 허약해서 대화가 곤란하다는 것을 의식하고서 주위에서 간호하는 사람들이 권하는 대로 기꺼이 조용히 안정을 취하게 되었다. 대시우드 부인은 한사코 둘째 딸 곁에서 밤을 새겠다고 했고, 엘리너는 어머니의 간청을 받아들여 자러 갔다. 그녀는 하룻밤을 뜯 눈으로 새웠고, 진을 빼게 하는 불안으로 몇 시간을 보냈으므로 휴식이 꼭 필요했다.

1	위 글은 읽기가 쉽다.	0	1	2	3	4
2	위 글은 이해하기가 쉽다.	0	1	2	3	4
3	위 글은 문학적으로 읽힌다.	0	1	2	3	4
4	위 글은 흥미로웠다.	0	1	2	3	4
5	위 글은 이어서 계속 읽고 싶어진다.	0	1	2	3	4

TT3:  
 대시우드 부인은 정신을 가다듬자마자, 가장 먼저 메리앤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리고 이 분 후에 그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있었다. 부재와 불행과 위험을 겪은 탓에 어느 때보다도 더 소중해진 터였다. 그들이 만나 감격하는 것을 보고 엘리너도 기뻐지만, 다만 메리앤이 잠을 더 자지 못할까 봐 걱정되었다. 그러나 대시우드 부인은 자식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경우에는 침착할 줄 알았고 신중해질 수조차 있었으며, 메리앤은 어머니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서 만족하였고 또 너무 허약해서 대화가 곤란하다는 것을 의식하고서 주위에서 간호하는 사람들이 권하는 대로 기꺼이 조용히 안정을 취하게 되었다. 대시우드 부인은 한사코 둘째 딸 곁에서 밤을 새웠다고 했고, 엘리너는 어머니의 간정을 받아들여 자러 갔다. 그녀는 하룻밤을 뜯눈으로 새웠고, 진을 빼게 하는 불안으로 몇 시간을 보냈으므로 휴식이 꼭 필요했다.

1	위 글은 읽기가 쉽다.	0	1	2	3	4
2	위 글은 이해하기가 쉽다.	0	1	2	3	4
3	위 글은 문학적으로 읽힌다.	0	1	2	3	4
4	위 글은 흥미로웠다.	0	1	2	3	4
5	위 글은 이어서 계속 읽고 싶어진다.	0	1	2	3	4

\* 주판식: TT1, 2, 3를 읽고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써주세요.

Set 3. 다음 지문을 읽고 답해주십시오.

TT1:  
 우울한 침묵이 방 안에 깔렸다. 보퍼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개인적으로 큰 곤경에 처한다 해도 그리 안타깝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가 처가에 재정적인 불명예를 안겼다는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그의 적

일지라도 좋아할 수만은 없었다. 아치가 아는 뉴욕은 사생활에서의 위선은 용인해 주더라도 사업 문제에서는 투명하고 흠 없는 정직성을 요구했다.

1	위 글은 읽기가 쉽다.	0	1	2	3	4
2	위 글은 이해하기가 쉽다.	0	1	2	3	4
3	위 글은 문학적으로 읽힌다.	0	1	2	3	4
4	위 글은 흥미로웠다.	0	1	2	3	4
5	위 글은 이어서 계속 읽고 싶어진다.	0	1	2	3	4

TT2:  
 우울한 침묵이 방 안에 깔렸다. 아무도 보퍼트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개인적으로 큰 곤경에 처한다 해도 그리 안타깝지는 않았지만, 그가 처가에 재정적인 불명예를 안겼다는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의 적일지라도 좋아할 수만은 없었다. 아치가 아는 뉴욕은 사생활에서의 위선은 용인해 주더라도 사업 문제에서는 투명하고 흠 없는 정직성을 요구했다.

1	위 글은 읽기가 쉽다.	0	1	2	3	4
2	위 글은 이해하기가 쉽다.	0	1	2	3	4
3	위 글은 문학적으로 읽힌다.	0	1	2	3	4
4	위 글은 흥미로웠다.	0	1	2	3	4
5	위 글은 이어서 계속 읽고 싶어진다.	0	1	2	3	4

TT3:  
 우울한 침묵이 방안에 깔렸다. 아무도 보퍼트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개인적으로 큰 곤경에 처한다 해도 그리 안타깝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가 처가에 재정적인 불명예를 안겼다는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의 적일지라도 좋아할 수만은 없었다. 아치가 아는 뉴욕은 사생활에서의 위선은 용인해 주더라도 사업 문제에서는 투명하고 흠 없는 정직성을 요구했다.

1	위 글은 읽기가 쉽다.	0	1	2	3	4
2	위 글은 이해하기가 쉽다.	0	1	2	3	4
3	위 글은 문학적으로 읽힌다.	0	1	2	3	4
4	위 글은 흥미로웠다.	0	1	2	3	4
5	위 글은 이어서 계속 읽고 싶어진다.	0	1	2	3	4

\* 주관식: TT1, 2, 3를 읽고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써주세요.

Set 4. 다음 지문을 읽고 답해주시시오.

TT1: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부자는 언제나 이상할 정도로 말없이도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보다 훨씬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에 판단을 유보하는 버릇이 생겼고, 그 때문에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자주 나에게 다가오는 바람에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사람들에게 적잖이 시달려야 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에게 그런 특성이 나타나면 재빨리 알아차리고 달라붙게 마련이다.

1	위 글은 읽기가 쉽다.	0	1	2	3	4
2	위 글은 이해하기가 쉽다.	0	1	2	3	4
3	위 글은 문학적으로 읽힌다.	0	1	2	3	4
4	위 글은 흥미로웠다.	0	1	2	3	4
5	위 글은 이어서 계속 읽고 싶어진다.	0	1	2	3	4

TT2: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부자는 언제나 이상할 정도로 말없이도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또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보다 훨씬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에 판단을 유보하는 버릇이 생겼고, 그 때문에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자주 나에게 다가왔다. 그 바람에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사람들에게 적잖이 시달려야 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에게 그런 특성이 나타나면 재빨리 알아차리고 달라붙게 마련이다.

1	위 글은 읽기가 쉽다.	0	1	2	3	4
2	위 글은 이해하기가 쉽다.	0	1	2	3	4
3	위 글은 문학적으로 읽힌다.	0	1	2	3	4
4	위 글은 흥미로웠다.	0	1	2	3	4
5	위 글은 이어서 계속 읽고 싶어진다.	0	1	2	3	4

TT3: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우리 부자는 언제나 이상할 정도로 말없이도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또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보다 훨씬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에 판단을 유보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 때문에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자주 나에게 다가왔다. 그 덕분에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사람들에게 적잖이 시달려야 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에게 그런 특성이 나타나면 재빨리 알아차리고 달라붙게 마련이다.

1	위 글은 읽기가 쉽다.	0	1	2	3	4
2	위 글은 이해하기가 쉽다.	0	1	2	3	4
3	위 글은 문학적으로 읽힌다.	0	1	2	3	4
4	위 글은 흥미로웠다.	0	1	2	3	4
5	위 글은 이어서 계속 읽고 싶어진다.	0	1	2	3	4

\* 주관식: TT1, 2, 3를 읽고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써주세요.

## 부록2. 분석 텍스트의 원문과 번역본

아래에는 설문지에 사용한 번역본 비교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은 1800년대 영미소설 *Pride and Prejudice*의 번역본으로 구성된 [세트 1]이다. [TT1]은 실제 출판된 번역본이며, [TT2]는 실제 출판된 번역본을 토대로 연구자가 평균 9단어로 문장길이를 조정한 것이며, [TT3]은 평균 11단어로 문장길이를 조정한 것이다.

- (1) [ST] Elizabeth listened in silence, but was not convinced; their behaviour at the assembly had not been calculated to please in general; and with more quickness of observation and less pliancy of temper than her sister, and with a judgement too unassailed by any attention to herself, she was very little disposed to approve them. They were in fact very fine ladies; not deficient in good humour when they were pleased, nor in the power of making themselves agreeable when they chose it, but proud and conceited. They were rather handsome, had been educated in one of the first private seminaries in town, had a fortune of twenty thousand pounds, were in the habit of spending more than they ought, and of associating with people of rank, and were therefore in every respect entitled to think well of themselves, and meanly of others. They were of a respectable family in the north of England; a circumstance more deeply impressed on their memories than that their brother's fortune and their own had been acquired by trade.

(Jane Austen 1970, 12; 평균 48단어)

[TT1]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수궁이 가지는 않았다. 무도회 날 그들의 행동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언니보다 관찰력이 예리하고 성격도 더 간간한 데다, 누가 관심을 가져준 탓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도 없었으니, 그 여자들을 좋게 봐줄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들은 사실 매우 세련된 숙녀들로, 기분이 좋을 때는 씩씩하게 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상냥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거만하고 잘난 체했다. 그들은 예쁜 편이었고, 런던에 있는 일류 사립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2만 파운드의 재산이 있었는데, 분수에 넘치게 소비하며 지체 높은 사람들하고만 사귀는 습성이 있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자신들을 높게 보고, 남을 천하게 볼 자격이 있다고 여겼다. 그들은 잉글랜드 북부의 양갓집 출신이었는데, 이 사실이 자기 남매들의 재산이 장사로 번 것이라는 사실보다 그들의 뇌리에 더 깊이 박혀 있었다.

(윤지관, 전승희 옮김 2016, 25; 평균 14단어)

[TT2]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수궁이 가지는 않았다. 무도회 날 그들의 행동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언니보다 관찰력이 예리하고 성격도 더 간간했다. 또 누가 관심을 가져준 탓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좋게 봐줄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들은 사실 매우 세련된 숙녀들로, 기분이 좋을 때는 씩씩하게 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상냥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거만하고 잘난 체했다. 그들은 예쁜 편이었고, 런던에 있는 일류 사립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2만 파운드의 재산이 있어서, 분수에 넘치게 소비하며 지체 높은 사람들하고만 사귀는 습성이 있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자신들을 높게 보고, 남을 천하게 볼 자격이 있다고 여겼다. 그들은 잉글랜드 북부의 양갓집 출신이었다. 이 사실이 자기 남매들의 재산이 장사로 번 것이라는 사실보다 그들의 뇌리에 더 깊이 박혀 있었다.

(수정안; 평균 9단어)

[TT3]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수궁이 가지는 않았다. 무도회 날 그들의 행동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언니보다 관찰력이 예리하고 성격도 더 간간한 데다, 누가 관심을 가져준 탓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좋게 봐줄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들은 사실 매우 세련된 숙녀들로, 기분이 좋을 때는 씩씩하게 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상냥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거만하고 잘난 체했다. 그들은 예쁜 편이었고, 런던에 있는 일류 사립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2만 파운드의 재산이 있어서, 분수에 넘치게 소비하며 지체 높은 사람들하고만 사귀는 습성이 있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자신들을 높게 보고, 남을 천하게 볼 자격이 있다고 여겼다. 그들은 잉글랜드 북부의 양갓집 출신이었는데, 이 사실이 자기 남매들의 재산이 장사로 번 것이라는 사실보다 그들의 뇌리에 더 깊이 박혀 있었다.

(수정안; 평균 11단어)

- (2)는 1800년대 영미소설 *Sense and Sensibility*의 번역본으로 구성된 [세트 2]이다. (3) 역시 [TT1]은 실제 출판된 번역본 중에서 원문의 형태에 최대한 충실한 번역본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TT2]는 평균 9단어, [TT3]는 평균 12단어로 연구자가 임의로 문장길이를 조정한 번역본이다.

- (2) [ST] As soon as Mrs. Dashwood had recovered herself, to see Marianne was her first desire; and in two minutes she was with her beloved child, rendered dearer to her than ever by absence, unhappiness, was danger. Elinor's delight, as she saw what each felt in the meeting, was only checked by an apprehension of its robbing

Marianne of farther sleep; but Mrs. Dashwood could be calm, could be even prudent, when the lift of a child was at stake, and Marianne, satisfied in knowing her mother was near her, and conscious of being too weak for conversation, submitted readily to the silence and quiet prescribed by every nurse around her. Mrs. Dashwood would sit up with her all night, and Elinor, in compliance with her mother's entreaty, went to bed. But the rest, which one night entirely sleepless, and many hours of the most wearing anxiety seemed to make requisite, was kept off by irritation of spirits.

(Jane Austen 2002, 245; 평균 26단어)

[TT1] 대시우드 부인은 정신을 가다듬자마자, 가장 먼저 메리언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리고 이 분 후에 그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있었다. 부재와 불행과 위험을 겪은 탓에 어느 때보다도 더 소중해진 터였다. 그들이 만나 감격하는 것을 보고 엘리너도 기뻐지만, 다만 메리언이 잠을 더 자지 못할까 봐 걱정되었다. 그러나 대시우드 부인은 자식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경우에는 침착할 줄 알았고 신중해질 수조차 있었으며, 메리언은 어머니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서 만족하였고 또 너무 허약해서 대화가 곤란하다는 것을 의식하고서 주위에서 간호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기꺼이 조용히 안정을 취하게 되었다. 대시우드 부인은 한사코 둘째 딸 곁에서 밤을 새겠다고 했고, 엘리너는 어머니의 간청을 받아들여 자러 갔다. 그녀는 하룻밤을 뜯눈으로 새웠고, 진을 빼게 하는 불안으로 몇 시간을 보냈으므로 휴식이 꼭 필요하다.

(윤지관 옮김 2006, 444; 평균 16단어)

[TT2] 대시우드 부인은 정신을 가다듬자마자, 가장 먼저 메리언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리고 이 분 후에 그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있었다. 부재와 불행과 위험을 겪은 탓에 어느 때보다도 더 소중해진 터였다. 그들이 만나 감격하는 것을 보고 엘리너도 기뻐다. 다만 메리언이 잠을 더 자지 못할까 봐 걱정되었다. 그러나 대시우드 부인은 자신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경우에는 침착할 줄 알았고 신중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메리언은 어머니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서 만족하였다. 또 너무 허약해서 대화가 곤란하다는 것을 의식했다. 그래서 주위에서 간호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기꺼이 조용히 안정을 취하게 되었다. 대시우드 부인은 한사코 둘째 딸 곁에서 밤을 새겠다고 했고, 엘리너는 어머니의 간청을 받아들여 자러 갔다. 그녀는 하룻밤을 뜯눈으로 새웠고, 진을 빼게 하는 불안으로 몇 시간을 보냈으므로 휴식이 꼭 필요하다.

(수정안; 평균 9단어)

[TT3] 대시우드 부인은 정신을 가다듬자마자, 가장 먼저 메리언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리고 이 분 후에 그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있었다. 부재와 불행과 위험을 겪은 탓에 어느 때보다도 더 소중해진 터였다. 그들이 만나 감격하는 것을 보고 엘리너도 기뻐지만, 다만 메리언이 잠을 더 자지 못할까 봐 걱정되었다. 그러나 대시우드 부인은 자식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경우에는 침착할 줄 알았고 신중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메리언은 어머니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서 만족하였다. 또 너무 허약해서 대화가 곤란하다는 것을 의식하고서 주위에서 간호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기꺼이 조용히 안정을 취하게 되었다. 대시우드 부인은 한사코 둘째 딸 곁에서 밤을 새겠다고 했고, 엘리너는 어머니의 간청을 받아들여 자러 갔다. 그녀는 하룻밤을 뜯눈으로 새웠고, 진을 빼게 하는 불안으로 몇 시간을 보냈으므로 휴식이 꼭 필요했다.

(수정안; 평균 12단어)

(3)은 1900년대 영미소설 *The Age of the Innocence*의 번역본으로 구성된 [세트 3]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TT1]은 원문의 형태에 가능한 충실하게 번역된 출판된 번역본이며, 이를 토대로 [TT2]는 평균 8단어, [TT3]는 평균 11단어로 연구자가 임의로 문장길이를 조정하여 만든 번역본이다.

(3) [ST] A gloomy silence fell upon the party. No one really liked Beaufort, and it was not wholly unpleasant to think the worst of his private life; but the idea of his having brought financial dishonour on his wife's family was too shocking to be enjoyed even by his enemies. Archer's New York tolerated hypocrisy in private relations; but in business matters it exacted a limpid and impeccable honesty.

(Edith Wharton 1974, 216 평균 22단어)

[TT1] 우울한 침묵이 방 안에 깔렸다. 아무도 보퍼트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개인적으로 큰 곤경에 처한다 해도 그리 안타깝지는 않았지만, 그가 처가에 재정적인 불명예를 안겼다는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의 적일지라도 좋아할 수만은 없었다. 아처가 이는 뉴욕은 사생활에서의 위선은 용인해 주더라도 사업 문제에서는 투명하고 흠 없는 정직성을 요구했다.

(송은주 옮김 2008, 319; 평균 15단어)

[TT2] 우울한 침묵이 방 안에 깔렸다. 보퍼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개인적으로 큰 곤경에 처한다 해도 그리 안타깝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가 처가에 재정적인 불명예를 안겼다는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그의 적일지라도 좋아할 수만은 없었다. 아처가 아는 뉴욕은 사생활에서의 위선은 용인해 주더라도 사업 문제에서는 투명하고 흠 없는 정직성을 요구했다.

(수정안; 평균 8단어)

[TT3] 우울한 침묵이 방안에 깔렸다. 아무도 보퍼트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개인적으로 큰 곤경에 처한다 해도 그리 안타깝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가 처가에 재정적인 불명예를 안겼다는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의 적일지라도 좋아할 수만은 없었다. 아처가 아는 뉴욕은 사생활에서의 위선은 용인해 주더라도 사업 문제에서는 투명하고 흠 없는 정직성을 요구했다.

(수정안; 평균 11단어)

(4)는 1900년대 영미소설 *The Great Gatsby*의 번역본으로 구성된 [세트 4]이다. 이 역시 [TT1]은 원문의 형태에 가능한 충실하게 번역된 출판된 번역본이며, 이를 토대로 [TT2]는 평균 9단어, [TT3]는 평균 11단어로 연구자가 임의로 문장길이를 조정하여 만든 번역본이다.

(4) [ST] He didn't say any more but we've always been unusually communicative in a reserved way and I understood that he meant a great deal more than that. In consequence I'm inclined to reserve all judgements, a habit that has opened up many curious natures to me and also made me the victim of not a few veteran bores. The abnormal mind is quick to detect and attach itself to this quality when it appears in a normal person, and so it came about that in college I was unjustly accused of being a politician, because I was privy to the secret griefs of wild, unknown men.

(Scott Fitzgerald 1925, 19; 평균 35단어)

[TT1]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부자는 언제나 이상할 정도로 말없이도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보다 훨씬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에 판단을 유보하는 버릇이 생겼고, 그 때문에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자주 나에게 다가오는 바람에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사람들에게 적잖이 시달려야 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에게 그런 특성이 나타나면 재빨리 알아차리고 달라붙게 마련이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난폭한 녀석들의 은밀한 슬픔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대학에 다닐 때

억울하게도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김옥동 옮김 2003, 15-16; 평균 20단어)

[TT2]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우리 부자는 언제나 이상할 정도로 말없이도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또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보다 훨씬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에 판단을 유보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 때문에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자주 나에게 다가왔다. 그 덕분에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사람들에게 적잖이 시달려야 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에게 그런 특성이 나타나면 재빨리 알아차리고 달라붙게 마련이다.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난폭한 녀석들의 은밀한 슬픔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대학에 다닐 때 억울하게도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수정안; 평균 9단어)

[TT3]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부자는 언제나 이상할 정도로 말없이도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또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보다 훨씬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에 판단을 유보하는 버릇이 생겼고, 그 때문에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자주 나에게 다가왔다. 그 바람에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사람들에게 적잖이 시달려야 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에게 그런 특성이 나타나면 재빨리 알아차리고 달라붙게 마련이다.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난폭한 녀석들의 은밀한 슬픔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대학에 다닐 때 억울하게도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수정안; 평균 11단어)